

# 설악 무산의 한국선종사 인식과 ‘설악산문’

김상영\*

• 목 차 •

- I. 머리말
- II. 산문(선문)의 계승과 단절
- III. 조계선풍 시원도량으로서의 설악산문
- IV. 무산의 설악산문 개산과 그 의의
- V. 맺음말

---

\* 前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 『大覺思想』 제39집 (2023년 6월), pp.145-172.

## 한글요약

설악 무산(雪嶽霧山, 1932~2018) 대중사는 조오현(曹五鉉)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하다. 그가 남긴 200여 수의 시조 작품은 많은 문학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며, 그는 처음으로 ‘한글 선시조(禪時調)’ 영역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된다.

무산은 1992년 신흥사 회주가 된 이후 입적할 때까지 설악산문의 개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무산은 「雪嶽山門을懸板하는 뜻」이라는 글을 지었는데, 비록 소략한 분량의 글이지만 그의 한국선종사 인식과 산문 개산의 취지는 이 글에 함축적으로 잘 담겨 있다. 이 논문은 무산이 지은 이 글을 중심으로 설악산문 개산과 그것에 담겨 있는 불교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작성되었다.

조계종은 500여 년의 역사를 지난 이후 1941년 ‘조선불교조계종’을 거쳐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재건되었다. 그리고 현 조계종단의 종헌에는 도의가 종조(宗祖)로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조계종과 종조 도의는 역사 속에서 되살아났지만, 구산선문의 역사는 끝내 ‘단절’의 역사로 남게 되고 말았다.

20세기 이후 한국불교사에서 무산의 설악산문 개산은 조계종의 재건에 견줄만한 의의를 지니는 일대 사건이었다. 특히 그가 표방했던 ‘조계선풍 시원도량 설악산문(曹溪禪風始原道場雪嶽山門)’의 취지는 한국선종사, 또는 조계종사의 핵심을 관통하는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소중한 의의를 지닌다. 무산은 단절되었던 조계종의 산문 역사를 ‘계승’의 역사로 되살린 고승이다. 현대 한국불교사에서 무산의 이러한 업적은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선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설악 무산, 조오현, 설악산문, 조계종, 가지산문, 선시조

## I. 머리말

지난 2016년 5월 21일 신흥사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봉행되었다. 하안거 결제법회를 앞둔 이날 신흥사는 현관 제막법회를 열었는데, 이 편역에는 ‘조계선풍시원도량설악산문(曹溪禪風始原道場雪嶽山門)’이라는 12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 법회를 주관한 인물은 설악 무산(雪嶽霧山, 1932~2018) 대종사였으며, 그는 이 법회를 마친 이후 “나는 이제 설악산에 와서 할 일을 다 했다.”<sup>1)</sup>는 소회를 밝혔다고 한다.

‘설악’은 무산대종사의 당호였다. 그만큼 설악산은 무산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었다. 설악산과 무산의 특별했던 인연을 감안한다면, 그의 일대기는 ‘설악이전’과 ‘설악이후’<sup>2)</sup> 크게 나눌 수 있다. 설악 이전의 무산은 조오현(曹五鉉)이라는 필명으로 대표된다. 그가 남긴 200여 수의 시조 작품은 많은 문학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며, 그는 처음으로 ‘한글 선시조(禪時調)’ 영역을 개척한 인물<sup>3)</sup>로 평가되기

1) 우송, 「나는 할 일을 다했다」, 『설악무산 그 흔적과 기억』, 인북스, 2019, p.40. 최근 무산 스님과 관련한 논문을 발표한 공일 스님은 이 책에 대해 “무산을 이해하기에 좋은 기본적 문헌으로는 『설악무산 그 흔적과 기억』이 있다. 이 책은 설악산 신흥사 회주 법검우송을 비롯하여 49명이 무산과의 인연담을 기록한 책이다. <산에 사는 날에>를 비롯하여 4부로 구성되어 있다. 무산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준 본지풍광(本地風光)이자 체로금풍(體露金風)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시대와 고락을 함께한 대방무외(大方無外)한 언행록이다.”고 소개한 바 있다. 공일, 「설악무산의 수행과 문학의 혼융에 대한 연구」, 『우리 시대 선지식들의 생애를 통해 본 수행자상』 세미나자료집, 중앙승가대 승가학연구원, 2022. 5. 27. 필자 역시 이 책을 통해 무산대종사의 진면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2) 무산은 처음 인월스님 문하로 출가하였다가 이후 1975년 성준화상에게 건당하였으며 1977년 신흥사의 주지직을 잠시 맡기도 하였다. 도미 생활과 불교신문사 재직기를 거친 이후, 무산은 1992년 신흥사 회주를 맡으면서 다시 설악산에 주석하기 시작하였는데, 필자는 무산의 본격적인 ‘설악이후’ 삶은 이때부터 비롯한 것으로 보고 싶다.

3) 권영민, 「조오현문학전집을 엮으며」, 『적멸을 위하여』, 문학사상, 2012.

도 한다.

설악 이후의 무산은 ‘설악선풍 시선행화(雪嶽禪風 詩禪行化)’라는 비제(碑題)<sup>4)</sup>의 표현에 잘 담겨 있다. 그는 1992년 신흥사 회주가 된 이후 입적할 때까지 설악산문<sup>5)</sup> 개산(開山)<sup>6)</sup>을 위해 진력하였다. 만해마을 건

- 
- 11, p.9, “시조의 언어를 선의 화두로 끌어올려 ‘선시조’의 경지를 개척한 큰스님이 아니던가?”
- 4) 대종사의 부도탑과 비는 신흥사 경내에 조성되어 있다. 신흥사는 2021년 5월 23일 탐비 제막식을 봉행하였으며, 비문은 무산의 평생 도반 정휴 스님이 작성하였다. 이 비의 전체 비제는 ‘傳佛心燈 證悟無生 雪嶽禪風 詩禪行化 雪嶽堂 霧山大宗師 碑銘’이며, 비문 내용은 『불교평론』(제86호, 2021년 6월호)에 수록되어 있다.
- 5) 한국선불교의 역사 속에서 ‘설악산문’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조범환은 “도의 선사와 그 제자들, 특히 설악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이들을 통칭해 ‘설악산문’으로 부르기로 하겠다. 물론 신라 하대 선종사에서 설악산문을 찾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도의 선사가 주석했던 진전사와 그의 제자인 염거가 주석했던 역성사를 포함해서 설악산문이라고 잠칭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은 체징이 개창한 가지산문과는 별개의 산문임을 밝혀둔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체징도 도의 선사의 법손이므로 설악산문 속에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체징은 가지산문이라는 새로운 산문을 개창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악산문과 가지산문을 구분하여 서술할 것이다.”는 견해를 밝혔으며(「신라 하대 도의 선사의 ‘설악산문’ 개창과 그 항배», 『신라문화』 34,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8, p.221), 홍사성 역시 조범환의 견해를 소개한 후 “본고에서도 설악산문은 ‘역사적으로 설악산을 중심으로 전개된 선수행의 전통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구산선문을 구성하는 여러 전통을 무슨무슨 산문으로 지칭하듯 설악산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선수행의 전통도 이렇게 호명할 때 그 의미가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이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홍사성, 「‘설악산문’의 성립과 역사적 전개», 『대각사상』 24, 대각사상연구원, p.49).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설악산문은 무산이 새롭게 개산한 산문이다. 다만 무산은 이 산문이 ‘조계선풍 시원도량’으로서의 역사적 배경과 전통을 지닌 곳이라는 점을 표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본문 제Ⅲ장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 6) 무산과 설악산문에 관계된 자료를 보면 ‘재건’이라는 용어가 다수 등장한다. 하지만 한국선종사에서 설악산문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무산이 설악산문을 재건하였다’는 식의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무산은 정작 자신이 마련한 만해대상 시상식장에서도 단상에 오르기를 꺼려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정성상 그는 의도적으로 ‘개산’이라는 용어보다 ‘재건’이라는

립, 진전사 중창, 백담사와 신흥사의 선원 개원 및 대한불교조계종 기본선원 개원 등은 그가 발원했던 산문 재건의 대표적 성과라 하겠다. 하지만 무산은 산문의 외형적 재건에 머물지 않으려 하였다. 그는 노구를 무릅쓴 무문관 정진과 기본선원 조실 추대 등을 통해 '선승 무산'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결국 무산은 설악 이후의 삶을 통해 시선행화와 시선일여(詩禪一如)의 선풍을 완성해 갔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계종(曹溪宗)은 1424년(세종 6) 종명(宗名)을 상실한 이후 1941년 다시 역사 속에 그 이름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승단과 불교인들은 무려 517년 만에 조계종이라고 하는 역사상의 종파를 재건하였으며,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다. 20세기 이후 한국불교사에서 무산의 설악산문 개산은 조계종의 재건에 견줄만한 의의를 지니는 일대 사건이었다. 특히 그가 표방했던 '조계선풍시원도량설악산문'의 취지는 한국선종사, 또는 조계종사의 핵심을 관통하는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소중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무산의 설악산문 개산과 그것에 담겨 있는 불교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단절된 한국의 '산문불교' 전통과 그 특성을 개관하고자 하였으며, 계속해서 설악산문이 조계선풍 시원도량으로서의 위격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역사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설악산문을 개산한 무산은 「雪嶽山門을懸板하는 뜻」<sup>7)</sup>이라는 글을 남겼다. 비록 소략한 분량의 글이지만 무산

---

용어를 선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필자는 설악산문은 무산이 개산한 것이며, 훗날 무산은 이 산문의 '개산조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다.

- 7) 이 글은 2016년 대한불교조계종 종립기본선원의 하안거 결제일에 발표된 것으로, 엄밀히 표현하면 조실 스님의 결제 법어에 해당하는 글이다. 이 글은 「설악산문 현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시와세계』 54호(2016. 6)에 실려 있기도 한데, 유인물과 달리 경어체를 쓰지 않고 있다.

의 한국선종사 인식과 산문 개산의 취지는 이 글에 함축적으로 잘 담겨 있다. 논문의 말미에서는 이 글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가 설악산문을 개산한 의의를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무산의 삶과 수행, 그리고 그의 시작(詩作) 활동을 포함한 행화(行化) 전반에 대한 필자의 이해는 매우 일천한 수준에 불과하다.<sup>8)</sup> 이 논문을 계기로 무산의 설악산문 개산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가 더욱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II. 산문(선문)<sup>9)</sup>의 계승과 단절

신라 하대 산문의 역사는 도의(道義)에서 비롯한다. 그는 중국 유학을 마치고 821년(헌덕왕 13) 무렵<sup>10)</sup> 귀국하였으며, 신라의 남종선 수용은 이 해를 기점으로 삼는다. 이후 적어도 15세기 초반까지 산문의 전통은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한국의 산문은 무려 600여 년에 달하는 전통과 역사<sup>11)</sup>를 간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 
- 8) 무산 관련 기존 연구성과는 공일 스님의 세미나 발표문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 9) ‘산문’은 지리적 의미가 강하다. 반면, ‘선문’(禪門)은 선법의 전승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산문보다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로 볼 수 있다. 9세기 이후의 각종 자료에는 산문과 선문이 혼용되어 나타나며, ‘9산문’과 ‘9산선문’ 역시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무산의 ‘설악산문’이라는 명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산문’으로 일관되게 표현하고자 했다는 점을 밝혀 둔다.
- 10) 「봉암사지중대사비」에는 ‘長慶初’로 되어 있는데, 장경이라는 연호는 821년부터 824년까지 사용되었다.
- 11) 600여 년에 달하는 한국불교 산문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자는 선문사(禪門史) 전체를 ‘선문 형성기 - 선문의 分化와 통합기 - 9산선문 성립기 - 선문 중흥기 - 선문 전통의 쇠퇴와 소멸기’로 나누어 보자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김상영, 「고려시대 가지산문의 전개양상과 불교사적 위상」, 『불교연구』 32, 한국불교연구원, 2010.

9세기 중반 무렵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산문은 왕실 및 호족세력의 지원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갔다. 각 산문은 개산조 이후 3-5대에 걸쳐 사자(師資)간의 뚜렷한 전승 관계를 보이면서 정착, 발전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는 이미 많은 양이 축적되어 있다. 신라 하대 선승들은 대부분 화엄학에서 출발하였다. 이들은 입당 유학 과정에서 선사상, 또는 선 수행에 심취하게 되었고 '선승'이 되어 귀국하였다. 821년 무렵 귀국한 도의는 강렬한 저항에 부딪혀 설악산으로 은둔하고 말았지만, 이후 9세기 중반에 이르면서 이러한 상황은 변하게 된다. 입당 유학을 마친 다수의 선승들이 연이어 귀국하고, 이들이 계속 선법을 전개해 나가자 신라불교는 단기간에 선종의 대두라는 전혀 새로운 분위기를 맞이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 귀국한 선승 관련 자료에서 도의처럼 당시 불교계로부터 배척당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이 시기에 이르면 신라 선종이 불교계의 한 축으로 자리해 가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9세기 중반의 선승들은 왕실과 중앙귀족, 혹은 지방호족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불교계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다.<sup>12)</sup>

산문 형성기를 지나면서 고려의 산문은 9산으로 확정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여러 산문이 오랜 세월에 걸친 분화(分化)<sup>13)</sup>, 통합<sup>14)</sup>의 과정

12) 신라 경애왕(景哀王)이 즉위한 해(924년) 황룡사에서 백고좌법회가 개최되었다. 『삼국유사』(권2, 「경애왕」)에 의하면, 이 백고좌법회에 선승들을 함께 초청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백고좌에서 선교를 함께 실한 시초였다”(此百座通說禪教之始)고 한다. 이 일은 신라 선종과 교종의 공존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중시할 필요가 있다.

13) 필자는 지난 2009년 개최된 만해축전 세미나에서 ‘분화’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이 글을 정리하여 “필자는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선문의 분화’, 즉 ‘가지산문의 분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싶다. 나말여초기에 성립된 유력 선문은 개산조를 지나면서 분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진전사에서 시작된 가지산문 역시 염거를 거쳐 체징, 이관 등에 의해 분화되어갔다. 선문의 분화는 선문의 확산과 영향력 증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분화’는 단순한 확산이나 발전과는 서로 다른 개념을 지닌다. 선문의 분화는 개산조 이후의 法系, 곧 전법 계통이 달라짐을 의미

을 겪은 이후, 비로소 9산선문으로 확립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이 시기 산문의 변화상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이 시기 선종사 연구에 적지 않은 혼선이 초래되고 있기도 하다. 지나친 추측일 수 있겠으나 나말여초 시기 분화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산문, 즉 가지산문이나 사굴산문과 같은 산문들은 이후 고려시대에서 유력 산문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낭혜 무염(朗慧無染)의 성주산문 같은 경우는 무염 당대의 막강했던 산문 세력에 비해 산문의 분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현저히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sup>15)</sup>

1084년(선종 1)의 『고려사』 기록, 즉 “기사에 보제사의 승려 정쌍 등이 주하기를, ‘9산문의 참학 승도는 청컨대 진사의 예에 의하여 3년에 한번씩 선발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를 따랐다(己巳 普濟寺僧貞雙等奏 九山門叅學僧徒 請依進士例 三年一選 從之)”는 기록을 중시한다면, 고려의

---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고려시대 가지산문의 전개양상과 불교사적 위상」, 앞의 책, 2010, pp.317-318. 하지만 필자는 아직도 각 선문 성립 이후의 초기 변화과정을 ‘분화’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이다. 최근 관련 연구에서 ‘분화’라는 용어가 통용되는 듯한 경향을 보이는데, 과연 그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14) 나말여초 산문의 역사에서 ‘분화’ 못지않게 ‘통합’의 과정도 중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9산선문에 포함되지 못했던 선문들은 9산선문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통합’의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러한 통합의 절차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왕실이나 선종 교단이 개입된 작위적 결과였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 15) 圓朗 大通(816~883)과 法鏡 玄暉(879~941)는 대개 성주산문의 범주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가지산문의 염거나 체징처럼 산문의 분화와는 성격이 다른 면모를 지닌다. 월광사를 중심으로 펼쳤던 대통의 선법과 성주산문, 즉 대통과 무염의 관계는 직접적인 전법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다. 체징은 가지산문의 ‘체징계’로 칭할 수 있는 성격을 분명하게 지니지만, 대통은 성주산문의 ‘대통계’로 칭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현휘 역시 대통과 마찬가지로의 성격을 지니며, 이렇게 본다면 성주산문의 분화는 활발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산문은 적어도 1084년 이전에 9산으로 확정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고려사』 이외에 『대각국사문집』에도 9산이라는 용례가 보이므로<sup>16)</sup> 적어도 11세기 중반 무렵에는 이미 '9산'의 개념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필자는 '9산'의 문제는 선종의 승과고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나말여초에 활발하게 도입된 선은 화엄종, 유가종과 같이 단일 종단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 점은 고려 승정 체계를 정비하고 특히 승과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 적지 않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 초의 선종은 다양한 산문을 정리하고, 그들 산문을 통할하는 단일 승단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유력 산문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던 9개 산문이 이른바 '9산'으로 내세워지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sup>17)</sup>

9산문 가운데 가지산문과 사굴산문은 한국의 산문을 대표하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들 두 개의 산문은 고려시대 전 기간에 걸쳐 뚜렷한 전승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선승 역시 대부분 가지산문과 사굴산문 출신이었다. 고려시대 조계종은 결국 이들 두 개의 산문을 중심축으로 하여 운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sup>18)</sup> 이규보(李奎報,

16) 『대각국사문집』 권19, 한국불교전서 제4책, p.562 中-下, “大施門開無壅塞 道心終與世途違 區區末學君知否 九分癡禪競是非”

17) 김상영, 『고려시대 선문 연구』, 동국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p.44.

18) 구산선문은 개창 이후 전개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발전상을 보이게 된다. 각 산문이 지니는 정치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또는 그 산문의 사상적 역량에 따라 산문 세력은 각각 그 우열이 갈라지게 되었다. 9산선문 가운데 고려후기까지 그 존속을 확인할 수 있는 산문은 5개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사굴산문과 가지산문을 제외한 나머지 산문의 활동과 영향력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회양산문은 원진국사 승형(圓眞國師 承迥, 1171-1221)을 통해 존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수미산문과 성주산문은 이규보의 담선법회와 관련한 글을 통해 역시 존속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산'은 고려후기까지 조계종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1168~1241)가 남긴 몇 편의 글<sup>19)</sup>을 통해 12~13세기 산문 중흥의 분위기를 잘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제목 그대로 수미산, 성주산, 가지산 등의 산문 소속 승려(叅學)들이 답선회를 개최하면서 산문 조사에게 예를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기 조계종의 각 산문은 답선회를 기해 한 자리에 모여 산문 조사에게 예를 올리는 행사를 개최하였던 것 같다. 이규보는 그 자리에서 낭독된 일종의 예참문 같은 성격의 글을 지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글에 ‘傳心曰祖 嗣脉者孫’이나 ‘曲護山門’과 같은 표현이 있다. 이 모임은 각 산문의 계승 의식뿐 아니라, 산문의 번영을 조사에게 기원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조계종 산문불교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산문의 개창 이후 300여 년이 지난 시점까지 이러한 형태의 범회가 개최되고 있었다면, 이것은 이른바 ‘가풍(家風)’의 측면에서도 특기할만한 일이기 때문이다.<sup>20)</sup>

한편, 13~14세기의 산문은 전통의 중요성보다 오히려 비판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조 지눌은 사굴산문에 소속되어 출가하고 그 자격으로 승과에 급제할 수 있었지만, 지눌 자신이나 그의 행장을 정리한 문도들 역시 사굴산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수선사 제2대 사주(社主)인 진각 혜심 역시 스승 지눌과 마찬가지로 기존 사굴산문의 전통을 계승하려 한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 지눌과 혜심, 두 고승과 관련한 자료에서는 그들의 소속 산문에 대한 언급이 일체 생략되어 있으며, 지눌은 ‘요즈음 선문에서 공부하는 모든 무리들(近來禪門汎學輩)’을 향해 강한 어조의 비판<sup>21)</sup>을 가하기도 하였다.

19) 『동국이상국집』에 전하는 「談禪會須彌山叅學等謁祖師眞文」, 「同前聖住山叅學等拜祖師文」, 「同前迦智山拜祖師文」 등의 글이다.

20) 혜심이 남긴 「九山祖師都贊」(『무의자시집』 권下, 한국불교전서 제6책, p.61下)이라든가, 충치가 남긴 「祖師禮懺兼發願文」(『동문선』 권 112, 한국불교전서 제6책, p.397上) 등도 이 시기 선문 의례의 성행 현상을 반영한 글들로 보인다.

21) 지눌, 『권수정혜결사문』, 한국불교전서 제4책, p.700下, “末法時代 人多

하지만 지눌과 혜심대를 거친 이후 수선사에서서는 다시 사굴산문과의 연계 의식이 부각되었다. 수선사 제4대 주지 진명 혼원(眞明混元)의 비에는 그가 '품일의 운손(品日雲孫)', 즉 사굴산문 개산조 범일의 운손인 종헌(宗軒) 선사의 문하에서 출가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sup>22)</sup>. 이어서 제6대 사주 충지(冲止)는 사굴산문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하게 표방하고 나섰는데, 그는 자신을 '조계의 적자(嫡子)요 품일의 래손(來孫)'이라고 표현하였다. 충지는 처음 출가해서는 독립된 문인인 수선사에 속해 있다가 다시 사굴산문의 승려가 된 이후 비로소 승과에 합격<sup>23)</sup>할 수 있었다. 수선사는 당시 선종계에서 '독립된 산문'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1205년의 사액(賜額)은 수선사의 독립성을 공식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절차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선사 소속 승려들에게는 승과 응시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던 것 같으며, 결국 충지는 사굴산문 승적을 다시 갖춘 이후에야 비로소 승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태고 보우 역시 고려 선불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문 통합이라고 하는 제도적 개혁을 주창하였다. 보우는 불교계뿐 아니라 고려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고승이기도 하다. 그는 왕사에 오른 이후 공민왕이 그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묻자, 먼저 마음을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설하고, 계속해서 '시대의 폐단(時之蔽)'과 '수의 변화(數之變)'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보우의 주장은 9산선문을 혁파하고 이것을 하나로 합쳐야만 나라의 운명이 개척될 수

---

乾慧 未免苦輪 運意則承虛託假 出語則越分過頭 知見偏枯 行解不等 近來禪門汎學輩 多有此病 皆云既自心本淨 不屬有無 何假勞形 妄加行用 是以效無碍 自在之行 放捨眞修 非唯身口不端 亦乃心行汚曲 都不覺知”

22) 「臥龍山慈雲寺王師贈謚眞明國師碑銘」, 『동문선』 권117, “年甫十三 投舅氏品日雲孫 禪師宗軒 披剃受具”

23) 冲 止, 「祝聖疏(又)」, 『원감국사가송(보유)』, 한국불교전서 제6책, p.402 下, “出爲獨立之門人 再亞嶠山之禪侶 因沾虛譽 獲叨選席之大科 謬沐洪私 又玷批聯之徽號 斯已踰涯之大過 常居揣分以難安”

있다는 것으로 집약된다.<sup>24)</sup> 아울러 그는 “이 도읍에 왕의 기운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 전성할 때처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남쪽 한양으로 옮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하오면, 교화는 자연히 육합(六合)에 빛나고 은혜는 만령(萬靈)에 입혀질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왕에게 한양으로의 천도를 적극 권유하기도 하였다.<sup>25)</sup> 하지만 9산문을 하나로 통합하려 했던 보우의 시도는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조계종 산문의 전통은 단절되고 말았다. 특히 조선중기 『해동불조원류』에 의해 한국 선불교 역사가 새롭게 정리되면서, 600여 년간 지속되어왔던 선종, 또는 조계종 전등의 역사는 그 자취와 의의를 상실하게 되었다. 한국 선불교의 역사가 ‘산문 중심의 전등사’에서 ‘임제-태고 중심의 전등사’로 탈바꿈해 버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하지만, 고려시대 조계종 전등사의 기본 골격은 산문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반드시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 산문의 역사를 조명하고, 산문불교가 지니는 특성과 의의를 규명하는 일은 곧 조계종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 Ⅲ. 조계선종 시원도량으로서의 설악산문

설악 무산은 설악산문을 현관하면서 이곳에 ‘조계선종 시원도량’이라

24) 維昌, 「행장」, 『태고화상어록』 권下, 『한국불교전서』 제6책, p.698下, “雖然今也 九山禪流 各負其門 以爲彼劣我優 鬪鬪滋甚 近者益之以道門 持矛楯作藩籬 繇是傷和敗正 噫 禪是一門 而人自關多門 烏在其本師平等無我之道 列祖格外清歛之風 先王護法安邦之意也 此時之蔽也 而九爲老陽 一爲初陽 老而衰也 理之常而又立都之時 九山之來既久 不如反其初 爲新陽之爲愈也 此數之變也”

25) 보우의 한양 천도 주장과 관련한 내용은 황인규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황인규, 「불교계 고승과 국도 천도 -고려 및 조선의 국도를 중심으로-」, 『대각사상』 18집, 대각사상연구원, 2012.

는 위상을 부여하였다. 여기서의 조계선풍은 물론 육조 혜능의 남종선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시원도량과 상응하는 의미로서의 '조계'는 역시 우리 역사 속의 조계종을 지칭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무산은 또한 설악산과 진전사를 '동국선종의 요람'이라 하였고, '우리나라 선종이 최초로 법천(法泉)을 남상(濫觴)한 시원도량'이라 하였으며, '남종선의 근본도량이자 성지'라고도 하였다.<sup>26)</sup> 이러한 무산의 인식은 '남종선 전래-초전자 도의-가지산문 개산조-조계종 종조'에 이르는 광범위한 역사를 두루 관통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필자 역시 가지산문의 역사와 그 불교사적 위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설악산문과 조계선풍 시원도량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도이는 37년간에 걸친 입당 구법 활동을 마치고 821년 무렵 귀국하였다. 귀국 이후 도이는 선법을 펴려 했지만, 교학에 심취해 있던 당시 불교계로부터 '마어(魔語)'('봉암사지증대사비'), 또는 '허탄(虛誕)'('보림사보조선사비')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도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느끼고(知時未集), 결국 북산(北山) 즉 설악산 진전사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도이의 명성을 전해 들은 수행자들은 그의 도를 사모하여 고기 있는 곳에 모여드는 개미 떼처럼 찾아와 산을 메웠으며, 도이로부터 교화된 수행자들은 기러기 떼처럼 계곡을 떠나갔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놓고 최치원은 “도는 인력으로 폐할 수 없는 것이며, 때가 되면 마땅히 행해지는 것이다”고 평한 바 있다.<sup>27)</sup>

26) 무산의 「雪嶽山門을懸板하는 뜻」에 실려 있는 표현들이다.

27) 이러한 내용은 「봉암사지증대사비」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

최치원 찬,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신라편, pp.302-303, “泊長慶初 有僧道義 □□□□西泛 瞻西堂之奧 智光伴智藏而還 智始語玄契者 縛猿心護奔北之短 矜鷲翼諳圖南之高 既醉於誦言 競嗤爲魔語 是用韜光廡下 斂迹壺中 罷思東海東 終遁北山 豈大易之無悶 中庸之不悔者邪 華秀冬嶺芳定林 蟻慕者彌山 雁化者出谷 道不可廢 時然後行”

도의의 법은 ‘개미 떼처럼 찾아와 기러기 떼처럼 떠나간’(蟻慕者彌山 雁化者出谷) 그의 제자들에 의해 퍼져가기 시작하였다. 염거(廉居)는 그의 대표적 전법제자였지만, 아쉽게도 자세한 행적이 전하지 않는다. 염거는 도의에게 법을 전해 받은 이후 설악산 억성사(億聖寺)에 머물면서 조사의 마음을 전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열었다(傳祖心 關師教, 「보림사 보조선사비」). 여기에서 ‘벽사교(關師教)’는 가지산문 제2조로서의 위상을 나타내주는 상징적 표현으로 주목된다. 그가 언제부터 억성사에 머물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844년 입적할 때까지<sup>28)</sup> 그곳에 계속 머문 것으로 추측된다. 염거 이외에도 도의의 법을 이은 전법 제자는 상당수에 달했을 것이지만, 그들의 범명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도의의 법은 염거에 의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억성사로 그를 찾아와 법을 전해 받았던 보조 체징(普照體澄, 804-880)은 가지산문을 확립한 실질적 개산조로 평가된다. 체징은 보원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이후 억성사에 있는 염거를 찾아가 그의 법을 이었다. 도의의 법은 염거를 거쳐 홍각 이관(弘覺利觀, ?~880)에게도 전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관은 840년을 전후한 무렵 억성사에 머무르면서 염거의 문하에서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873년 무렵 다시 억성사를 찾아와 이곳에서 입적한 사실이 비문에 의해 확인된다.

도의 - 염거 - 체징, 이관에 이르는 가지산문 초기의 전법 관계를 통해 처음 진전사에서 시작된 도의의 선법은 그의 계승자들에 의해 억성사와 가지산사로 확산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도의의 입적 이후 가지산문의 근본도량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전사와 관계된 내용은 한동안 보이지 않지만, 보조 체징과 그의 문도들은 가지산사를 선문 중심지로 변화시켜 놓았다. 체징의 비를 찬술한 김영(金穎)은 『예기』에 실려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달마는 당나라의 제1조이며, 도의는 아국(我國) 즉

28) 염거의 입적 시기는 국보 제104호인 부도 「(傳)興法寺廉巨和尚塔」을 옮겨 세울 때 발견된 金銅塔誌의 내용, 즉 會昌四年이라는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신라의 제1조가 된다는 표현을 하였다. 계속해서 제2조는 염거이며, 제3조는 체징이라는 내용<sup>29)</sup>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가지산문의 정통성, 즉 가지산문의 정계(正系)를 표방하기 위한 의도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체징에 의해 가지산문의 중심지가 보림사로 대두되긴 하였지만, 진전사는 여전히 가지산문 근본도량으로서의 위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진공(眞空□蓮<sup>30)</sup>, 855~937)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31)</sup> 진공은 도의보다 대략 100여 년 뒤에 활동했던 고승이다. 그는 왕명에 의해 진전사에 도착하여 영탑에 예배하고 도의에게 영원히 제자가 되겠다는 의례를 행하였다(永申弟子之儀). 또한 비문을 지은 최언위는 이러한 진공의 행동에 대해, '진리가 있으면 능히 알 수 있는 것이니, 스승 없이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평하였다. 비록 100여 년의 세월 간격을 두고 있지만, 비문의 찬자는 진공이 도의의 법을 계승할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진전사는 여전히 도의의 선법을 상징하는 근본도량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sup>32)</sup> 사제간의 전법 관계없이 직접 도의의 법을 계승하겠다

29) 金 穎 찬,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비」(이지관, 『교감역주 역대고승 비문』 신라편, 앞의 책, pp.106-107, “禮云 別子爲祖 康成注云 子若始來 在此國者 後世以爲祖 是以達摩 爲唐第一祖 我國則以儀大師 爲第一祖 居禪師 爲第二祖 我師第三祖矣”

30) 비문에는 缺字이나,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 1, 같은 책, p.112에서 '慧'로 추정하였다.

31) 진공의 비문이 새롭게 발견되어 공개되었으며 정동락은 이 비문 내용을 바탕으로 진공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眞空(855~937)의 생애와 사상」, 『한국중세사연구』 26, 한국중세사학회, 2009.

32) 진전사는 普覺 一然의 출가 사찰이기도 하다. 13세기 전반에도 진전사는 가지산문 근본도량으로서의 사격을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말 여초기의 가지산사(보림사), 역성사, 고려 중 후기의 운문사, 인각사 등은 해당 시기 가지산문의 '중심도량'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반면 진전사는 가지산문 존속 기간동안 계속해서 '근본도량'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고 나선 진공이라는 선승의 존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지산문의 초기 역사에서는 제3대조 시기부터 산문 분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물론 2대조인 역성사 염거도 진전사로부터 분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를 설명할만한 자료가 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3대조에 해당하는 체징의 단계에 이르면 가지산사(보림사)로의 분화가 뚜렷하게 보이며, 체징과 그의 문도들은 ‘체징계(體澄系)’를 가지산문의 정계로 표방하고자 하였다.<sup>33)</sup> 이에 비해 역성사를 다시 찾은 홍각 이관이나 그의 문도들은 분명 ‘체징계’와는 구분되는 산문 의식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진공은 ‘체징계’나 ‘이관계’의 계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지산문의 법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진공은 진전사에서 영원히 도의의 제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한 이후 경주를 거쳐 김해로 갔다가, 931년(태조 14) 고려 태조와 만났다. 이후 937년(태조 20) 개경에 가서 태조와 재상봉하고 다시 소백산사로 돌아와 입적하였다. 그의 제자로는 현양(玄讓)과 행조(行照)선사 등 400여 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진공계’로 이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지산문 법계가 될 것이다. 이처럼 나말여초 시기의 가지산문은 ‘체징계’ ‘이관계’ ‘진공계’로 이름할 수 있는 법계가 형성되어 있었다.<sup>34)</sup> 이들 이외에도 또 다른 산문의 분화과정과 그에 따른 법계의 형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와 관련된 자료는 전해지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기 가지산문의 역사와 설악산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설악산 진전사는 도의의 수행처이자 입적도량이었다. 도의보다 대략 100여 년 뒤에 활동했던 고승 진공은 진전사를

33) 체징의 문도로는 英惠, 淸奘, 義車 등 800여 명과 先覺 迥微(864~917)가 있었다. 이들 가운데 형미가 대표적 제자이지만, 그는 궁예의 불교정책에 반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려 초기를 지나면서 보림사 관련 자료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체징계’ 선승들의 활동과 영향력이 그만큼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34) 정동락은 보림사 계열을 ‘체징계’, 진전사·역성사 계통을 ‘北山계’로 표현하였다. 정동락, 「眞空(855~937)의 생애와 사상」, 앞의 책, p.14.



찾아 도의 영탑에 예배하고, 도의에게 영원히 제자가 되겠다는 의례를 행하기도 하였다. 비록 체징 이후 가지산문의 중심지는 보림사로 옮겨 가는 듯한 변화를 보이지만, 진전사는 오랜 세월 동안 가지산문의 '근본 도량'과도 같은 위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설악산 역성사 역시 초기 가지산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량이다. 염거는 도의의 대표적 전법 제자였으며, 도의에게 법을 전해 받은 이후 역성사에 머물다가 입적하였다. 「보림사보조선사비」의 표현대로 역성사는 염거가 스승의 가르침을 얻어간 도량이며, 체징이 염거를 찾아와 법을 전해 받은 도량이기도 하다.

도의로부터 시작된 가지산문의 역사는 고려후기까지 온전히 계승되고 있었다. 보감국사 혼구(寶鑑國師 混丘, 1250~1322)의 비문<sup>35)</sup>에 실려 있는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명문(銘文) 내용을 통해 가지산문의 역사와 위상을 잘 살필 수 있다.

멀리서 저 심중이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오니,  
 그 갈래가 아홉인데 도의 스님이 으뜸이었네.  
 그의 후예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대대로 철인이 있었으니,  
 바른 것을 지키고 잘못을 고치는 것은 운문사의 학일(學一) 스님이었고  
 널리 배우고 독실하게 실천함은 인각사의 견명(見明) 스님이었네.  
 보감(寶鑑) 스님의 지혜가 빼어나 그 적통을 이었으니,  
 그의 포부는 깊고 그의 재주는 우뚝하도다.<sup>36)</sup>

이제현은 보감 혼구의 비문을 찬술하고, 그 끝에 위와 같은 내용의 명을 덧붙였다. 그런데 이 명의 앞부분은 가지산문의 역사와 위상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먼저 아홉의 갈래로 나뉜 산문에서 도의가 으뜸이라는(道義其首)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도의

35) 『익재난고』 권7, 『동문선』 권118

36) 夔彼心宗 滄海而東 厥派惟九 道義其首 繩繩仍昆 代有哲人 守正矯失 雲門之一 博學篤行 麟角之明 顯允鑑智 侯其嫡嗣 淵乎其懷 卓乎其才

가 지니는 ‘남종선 초전자’로서의 역사적 위상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sup>37)</sup> 이제현은 계속해서 가지산문의 역사를 언급하였다. 도의에서 비롯한 선법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선철(先哲)이 대대로 배출되었다고 하였으며, 그 대표적 인물로 원응 학일과 보각 견명(一然)을 들었던 것이다. 이제현은 특히 학일을 ‘수정교실(守正矯失)’, 견명 즉 일연을 ‘박학독행(博學篤行)’이라고 하여 이들에 대한 함축된 인물평도 덧붙였다. 아울러 학일은 운문사, 일연은 인각사로 각각 상징하면서 이들 사찰과 가지산문의 깊은 연관성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고려의 조계종은 철저히 산문 중심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가지산문은 이들 산문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에 해당하는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권력자들은 건국 초기부터 꾸준하게 불교 종파의 축소와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며, 결국 중종대에 이르러 완전한 폐지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목적하는 바는 불교의 소멸이었음이 분명하다. 태종대 7종으로의 축소, 세종대 선교 양종으로의 통폐합 조치는 단지 교세의 외형적 축소에서 그치지 않는다. 조선초 진행된 이들 조치로 인해 한국불교는 전문성과 집단성을 크게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세종대 자행된 ‘선교양종’으로의 통폐합 조치는 한국 종파불교의 역사를 가장 극단적으로 퇴행시킨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조계종, 천태종, 총남종은 서로 너무나도 다른 전문성을 지니는 종파였다. 그런데 이들을 한데 묶어 ‘선종’이라 하였다는 것은 결국 이전 시기까지 유지, 발전시켜왔던 불교의 전문성을 멸실시키는 조치였다. 이처럼 극단적인 폐쇄책을 시행하면서 내걸었던 명분은, “석씨(釋氏)의 도는 선·교 양종 뿐이었는데, 그 뒤에 정통과 방계가 각기 소업(所業)으로써 7종으로 나누

37) 보조 체정의 비문에서도 도의는 ‘我國第一祖’라는 위상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규보는 고려의 가지산문을 ‘第一山門’(「同前迦智山拜祖師文」)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어졌습니다. 잘못 전하고 거짓을 이어받아, 근원이 멀어짐에 따라 말단이 더욱 갈라지니 실상 그 스승의 도에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또 서울과 지방에 사사(寺社)를 세워, 각 종에 분속시켰는데, 그 수효가 엄청나게 많으나, 승려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절을 비워두고 거처하는 자가 없으며, 계속하여 수증(修葺)하지 않으므로 점점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sup>38)</sup>라는 것이었다. 다분히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1424년(세종 6) 이후의 조선불교는 그나마 선교양종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노력이었다.

조계종은 500여 년의 역사를 지난 이후 1941년 ‘조선불교조계종’을 거쳐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재건되었다. 그리고 현 조계종단의 종헌에는 도의가 종조(宗祖)로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조계종과 종조 도의는 역사 속에 되살아났지만, 구산선문의 역사는 끝내 ‘단절’의 역사로 남게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산된 설악산문은 개산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특히 ‘조계선풍 시원도량’이라는 설악산문의 위상을 천명함으로써 향후 설악산문은 단절된 한국 선불교의 산문 전통을 선도적으로 재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뚜렷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된 무산대종사의 설악산문 개산은 역사의 ‘일대사(一大事)’로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 IV. 무산의 설악산문 개산과 그 의의

설악 무산의 설악산문 개산은 1992년 신흥사 회주가 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먼저 백담사 경내에 무문관인 무금선원을 개원하였으며(1998), 곧이어 신흥사 향성선원을 개원하였다(2000). 계속해서 그는 남설악 진전사를 복원하는 불사를 시작하였으며, 백담사에

38) 『세종실록』 세종6년 갑진(1424) 4월 5일 경술.

조계종 기본선원을 개원하는(2002)<sup>39)</sup>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산문 개산을 위한 무산의 정진에 대해 정휴 스님은 비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로써 鐵眼銅睛의 안목을 얻은 스님은 雪嶽山門의 會主가 되어 중창의 大業을 착수했다. 曹溪宗 第三敎區本寺인 新興寺에는 香城禪院을 개원했으며 내설악 百潭寺에는 無門關인 無今禪院을 建創하여 六祖의 玄旨와 臨濟의 玄義가 구현되도록 하였다. 더하여 海東禪法의 祖師인 道義國師가 曹溪禪風을 濫觴한 聖地인 陳田寺를 복원하고 百潭寺에는 종단의 교육기관인 基本禪院을 열어 드디어 雪嶽山門이 曹溪宗의 宗乘中事를 잇게 하였다. 중생제도의 大願力은 佛事로 이어져 퇴락한 서울 興天寺를 重修하고 道場을 일신하여 三角禪院을 개원하니 이곳에 앉고 머문 이는 빈손으로 왔다가 把手上高山의 實利를 얻었다.<sup>40)</sup>

무산이 한국선종사와 조계종사에 정통한 식견을 갖추고 있었음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가 진전사를 성지로 인식하고 그 복원에 앞장섰다는 사실은 좋은 예에 해당할 것이다. 진전사는 조선 시대를 지나면서 폐사의 형태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은 그저 국보와 보물이 있는 ‘진전사지’에 불과하였으며, 이러한 현실을 두고 종단 구성원들은 많은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난 2000년 무렵 불교미술사학자 고 정영호 박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사지 주변 땅 3천여 평을 신흥사에 기증하면서 진전사 복원의 계기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정영호 선생의 토지 기증에 이어 신흥사와

39) 무산은 기본선원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김한수의 “특히 2014년 가을 백담사 기본선원 교과안거 입재식 날은 잊을 수 없다. … 내려오는 길, 스님은 매우 흡족해했다. 혼잣말처럼 ‘내가 중 되고 나서 제일 기본 날이다’라고도 한 것 같았다”는 글이 참조된다. 김한수, 「속았다, 『설악 무산 그 흔적과 기억』, 앞의 책, pp.176-177.

40) 정휴 찬, 「傳佛心燈 證悟無生 雪嶽禪風 詩禪行化 雪嶽堂 霧山大宗師 碑銘」, 『불교평론』 86, 2021.

양양군은 사지 주변 토지매입에 나섰고,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진전사 복원불사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졌다. 결국 2004년의 대웅전 건립 기공식, 그리고 2005년 6월 26일 대웅전 낙성식을 봉행하면서 진전사는 비로소 조계종 '종찰(宗刹)'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sup>41)</sup>

무산대중사는 2016년 '조계선종시원도량설악산문'을 현판하면서 하안거 결제법어로 「雪嶽山門을懸板하는 뜻」이라는 글을 배포하였다. 이 법어는 무산의 한국선종사 인식뿐 아니라 설악산문 개산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이 가운데 논문의 주제와 관계된 내용을 일부 옮겨오면 다음과 같다.

① 그러나 의심이 많고 근기가 낮은 凡夫는 무엇인가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지어야 거기에 기대 서로 琢磨하고 스스로를 加鞭하게 됩니다. 佛祖가 짐짓 이 세상에 출현하시고 팔만사천의 방편을 펼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동국선종의 요람이었던 이곳 설악산에 雪嶽山門을懸板하는 뜻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알다시피 설악산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법을 전한 신라 道義禪師가 남설악에 陳田寺를 짓고 후학을 가르친 산입니다. 도의선사는 중국에 유학하여 西堂智藏에게 배우고 南宗禪의 정맥을 이은 분이니 이곳은 우리나라 선종이 최초로 法泉을 濫觴한 始源道場입니다.

③ 오늘 노골이 설악산에 얽힌 이런저런 史蹟을 자랑삼아 늘어놓는 것은 雪嶽山門이라 현판한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릇 한 산중에 들어가는 문을 九山禪門처럼 무슨무슨 山門이라 부르는 것은 거기에 빛나는 禪風이 깃들어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설악산에서

41) 필자는 『법보신문』의 논설 기사를 통해 “대한불교조계종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불교 종파이다. 이 종단의 중흥에서 명시된 ‘종조 도의’는 물론 후대에 마련된 인식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타당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진전사는 이러한 조계종 종조 도의 스님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도량이다. 그래서 복원 이후 종단에서는 진전사에 ‘종찰’이라는 특별한 사격을 부여하였던 것이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도의선사에 의해 시작되고 수많은 용상대덕에 의해 전승되어온 曹溪禪宗의 전통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내외에 闡明하는 법회인 것입니다.

④ 우리 설악산에서는 그동안 산문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도의선사가 제자를 가르쳤던 남설악에 진전사 부도전을 복원했고, 외설악 신흥사에는 향성선원, 내설악 백담사에는 무금선원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기본선원이 백담사로 이전함에 따라 설악산은 이제 드디어 명실상부한 조계선종의 시원도량으로서 位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먼저 ①에서는 설악산문을 현판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산문은 ‘무엇인가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짓는’ 것을 뜻하며, 그래야 범부들은 서로 탁마하고 스스로를 가편(加鞭)하게 된다는 법어이다. ②와 ③은 설악산문이 지니는 역사성을 밝히는 내용이다. 도의와 진전사를 언급한 부분은 역사적 사실에 그대로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산선문처럼 무슨무슨 산문이라 부르는 것은 거기에 빛나는 선풍(禪風)이 깃들어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부분은 마치 한국산문불교의 특성 이해<sup>42)</sup>를 위한 과제와도 상통하는 느낌을 준다. 아울러 ③에서는 설악산문을 현판하는 법회의 성격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자리는 설악산에서 도의선사에 의해 시작되고 수많은 용상대덕에 의해 전승되어온 조계선종의 전통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내외에 천명하는 법회’라는 대중사의

42) 각 산문별 선풍과 사상적 특성을 규명해내는 일은 한국선종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과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한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9산선문 사이에 사상의 차이를 지적하는 것은 이 시대 선종사상사의 연구를 심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개별 산문의 선풍 곧 문풍의 차이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선종사상이 본질 면에서는 구별될 수 없기 때문에, 선풍의 연구는 개별 산문이 방편으로 교학이나 다른 사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는가를 밝히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김두진, 「나말여초 선종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역사학보』 188, 2005, p.319.

법을 통해 단절된 한국 선불교의 산문 전통을 복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살필 수 있다. 결국 무산은 ④의 표현처럼, '설악산은 이제 드디어 명실상부한 조계선종의 시원도량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무산은 '설악산문'을 중시하였다. 물론 설악산문은 그가 새롭게 명명한 것이었지만 '조계선종 시원도량 설악산문'이라는 표현 속에 작명의 의도는 모두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는 우리 선불교 역사 속에 뚜렷하게 자리하고 있는 9산선문의 전통을 중시하였다. 지금의 대한불교 조계종은 중현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9산선문을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종조 도의는 가장 이른 시기 남종선을 신라에 전한 초전자로서 뚜렷한 위상을 지닌다. 하지만 조계종 구성원들은 종명과 중현, 그리고 현실불교 사이에서 적지 않은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 무산의 설악산문은 이러한 종도들의 인식 문제에 대한 경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설악 무산의 한국 선종사 인식과 조계종사 인식은 마치 일제강점기 학승들의 그것과 맞닿아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일제는 식민통치의 시작과 함께 조선불교계를 강제적으로 편제하는 정책을 펼쳐나갔다. 그들은 30분말사법, 사찰령 등의 악법과 제도를 적극 시행해 나갔으며, 조선불교계 전체를 '조선불교선교양종'이라는 단일 종명으로 통합하였다. 하지만 이 종명은 한국불교사와 전혀 무관한 이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권상로 김영수 등의 학승을 중심으로 이 시기 승단은 종명 개정을 적극 주창하였고, 결국 일제는 1941년 '조선불교조계종'이라는 종명을 단일종단의 명칭으로 승인하게 되었다. 구산선문 - 조계종을 정통으로 표방하는 이 시기 승려들의 선종사 인식<sup>43)</sup>과 무산의 인식은 상당

43)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종명, 종조 등과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김광식, 「도의국사의 종조론 시말」, 『도의국사 연구』, 인북스, 2010.

김상영,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종명 변화와 종조·법통 인식」, 『불교근대

부분 닮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종조 도의를 본격적으로 선양하기 시작한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조계종 종도 가운데 상당수는 이러한 조계종의 정통 인식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산의 한국 선종사 인식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더 나아가 무산은 진전사를 ‘종찰’의 위상에 걸맞은 사격으로 변화시켜 놓았으며, 신흥사와 백담사 일원을 ‘조계선풍 시원도량 설악산문’이라 명명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많은 선시조 작품과 이웃들을 보살뵈던 그의 행화가 일치하듯이, 그는 한국 선종사와 조계종사에 대한 투철한 역사 인식을 설악산문 개산이라는 업적으로 승화시켰다. 무산은 단절되었던 조계종의 산문 역사를 ‘계승’의 역사로 되살린 고승이다. 현대 한국불교사에서 무산의 이러한 업적은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선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산은 조계종의 핵심 선풍인 간화선을 중시하였다. 그는 『벽암록』 『무문관』 등의 선서 해설서를 간행하였다. 홍사성의 표현<sup>44)</sup>처럼 그는 『무문관』을 ‘새로우면서도 독특한 질문 방식’으로 꾸며냈다. 무산은 『벽암록』에서도 자신의 선사상을 드러내었다. 정작 본인은 “내가 한때 음력(吟力)도 없으면서 장구(章句)에 미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책에서 장구를 흠친 도벽(盜癖)을 살려 감상을 덧붙여 말미에 달기로 했다. 그

---

화의 전개와 성격』, 조계종출판사, 2006.

김용태, 「조선후기·근대의 종명과 종조 인식의 역사적 고찰-조계종과 대고법통의 결연-」, 『선문화연구』 8,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0.

- 44) “이에 비해 무산당 오현 스님의 『무문관』 강설은 매우 쉽다. 알 듯 모를 듯한 신비주의의 옷을 처음부터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공안과 마주 앉는다. 과감하게 본적공안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직접 살펴보는 해설 방식이다. ‘조주무자’를 예로 든다면 스님은 ‘왜 무(無)인가?’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부처로 살 것이냐, 개처럼 살 것이냐’를 공안으로 내세운다. 이렇게 물어야 진정으로 살아 있는 화두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없던, 오현 스님이 채택한 새로우면서도 독특한 질문 방식이다.”



러니까 이것은 본격적인 평창(評唱)이나 착어(著語)가 아니라 단순한 독후감이다. 과일 맛은 알 수 없으니 모양만 보고 느낀 대로 그려보기로 한 것이다.”는 소회를 밝혔지만, 이 책 역시 무산의 선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든다. 무산의 한국 선종사 인식과 그의 선풍은 서로 맞닿아 있음이 분명하다. 향후 무산의 선풍을 주목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설악산문 개산이 지니는 역사적 가치와 그 중요성은 더욱 크게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V. 맺음말

설악 무산의 일대기를 상징하는 단어는 ‘선시조’와 ‘설악산문’이다. 두 단어는 서로 생경한 느낌을 주지만, 무산에게 있어 두 단어는 하나로 연결된다. 그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시조라는 전통 문학을 중시하고 일평생 시조의 보급을 위해 헌신하였다. 그리고 무산은 신흥사 회주로 부임한 이후부터 단절된 한국불교 산문의 역사를 되살리는 업적을 남겼다. 필자는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을 ‘전통 중시’라는 덕목에서 찾고 싶다.

20세기 이후 한국불교사에서 무산의 설악산문 개산은 조계종의 재건에 견줄만한 의의를 지니는 일대 사건이었다. 특히 그가 표방했던 ‘조계선풍 시원도량 설악산문’의 취지는 한국 선종사, 또는 조계종사의 핵심을 관통하는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소중한 의의를 지닌다. 무산은 단절되었던 조계종의 산문 역사를 ‘계승’의 역사로 되살린 고승이다. 현대 한국불교사에서 무산의 이러한 업적은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선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무 산, 「설악산문 현판의 의미」, 『시와세계』 54호, 2016.
- 정휴 찬, 「佛心燈 證悟無生 雪嶽禪風 詩禪行化 雪嶽堂 霧山大宗師 碑銘」, 『불교평론』 제86호, 2021.
- 김광식 외, 『도의국사 연구』, 인북스, 2010.
- 조오현·권영민, 『적멸을 위하여』, 문학사상, 2012.
- 홍사성·김병무, 『설악무산 그 흔적과 기억』, 인북스, 2019.
- 공 일, 「설악무산의 수행과 문학의 혼용에 대한 연구」, 『우리 시대 선지식들의 생애를 통해 본 수행자상』 세미나자료집, 중앙승가대 승가학연구원, 2022.
- 김광식, 「도의국사의 종조론 시말」, 『도의국사 연구』, 인북스, 2010.
- 김두진, 「나말여초 선종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역사학보』 188, 2005.
- 김상영,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종명 변화와 종조·법통 인식」, 『불교근대화의 전개와 성격』, 조계종출판사, 2006.
- \_\_\_\_\_, 『고려시대 선문 연구』, 동국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_\_\_\_\_, 「고려시대 가지산문의 전개양상과 불교사적 위상」, 『불교연구』 32, 한국불교연구원, 2010.
- 김용태, 「조선후기·근대의 종명과 종조 인식의 역사적 고찰-조계종과 태고법통의 결연-」, 『선문화연구』 8,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0.
- 정동락, 「眞空(855-937)의 생애와 사상」, 『한국중세사연구』 26, 한국중세사학회, 2009.
- 조범환, 「신라 하대 도의 선사들의 ‘설악산문’ 개창과 그 향배」, 『신라문화』 34,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8
- 홍사성, 「‘설악산문’의 성립과 역사적 전개」, 『대각사상』 24, 대각사상연구원, 2015.
- 황인규, 「불교계 고승과 국도 천도 -고려 및 조선의 국도를 중심으로-」, 『대각사상』 18, 대각사상연구원, 2012.

Abstract

Seorak Musan's Recognition of the History of Korean Seon Order  
and 'Seorak Seon Sect'

Kim, Sang-young  
(Former professor at Joong-ang Sangha University)

Seorak Musan(雪嶽霧山, 1932~2018), a great patriarch, is famous for his pen name Cho Oh-Hyeon(曹五鉉). The 200 pieces of sijo he left behind were praised by many literary figures, and he is evaluated as the person who first pioneered the field of 'Korean Seon sijo'.

From the time he became the elder master of Shinheungsa Buddhist Temple in 1992 until his death, Musan worked hard for the founding of Seorak Seon Sect. Musan wrote an article titled "The meaning of hanging a signboard on Seorak Seon Sect." Although it is a short article, his perception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Seon Order and the purpose of the founding of the Seon Sect are implicitly well contained in this article. This paper is written with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founding of Seorak Seon Sect and its significance in Korean Buddhism history, focusing on the article written by Musan.

After 500 years of history, the Jogye Order was rebuilt in 1941 as the 'Jogye Order of Joseon Buddhism' and then as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in 1962. And in the current Jogye Order's Order constitution, Doeui is specified as the founder of the Order (宗祖). As such, the Jogye Order and Doeui, the founder of the sect, were thrilled to be resurrected in history, but the history of the Seon Sect of nine mountains ended up remaining as a history of 'severance'.

In Korean Buddhism history since the 20th century, the founding of Seorak Seon Sect by Musan was a major event comparable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Jogye Order.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Jogyeseonpung Siwondoryang Seorak Seon Sect(曹溪禪風始原道場雪嶽山門)’, which he advocated, is more valuable in that it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history of Korean Seon Buddhism or a historical consciousness that penetrates the core of the history of the Jogye Order. Musan is a high priest who revived the history of Seon Sect of the Jogye Order, which had been cut off, as a history of ‘succession’. In modern Korean Buddhist history, these achievements of Musan will need to be continuously evaluated and promoted.

#### Key words

Seorak Musan, Cho Oh-Hyeon, Seorak Seon Sect, Jogye Order, Ga-Ji Seon Sect, Seon Sijo

논문투고일 : '23. 04. 28. 심사완료일 : '23. 05. 24. 게재확정일 : '23. 05. 24.